

『영미연구』

제59집 (2023): 87-112

<http://doi.org/10.25093/ibas.2023.59.87>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수치심과 죄의식*

이 동 춘

단독 / 대구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세 시대 수치심이란 무엇이며, 수치심은 어디에서 유발되며, 수치심을 유발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가 소속된 공동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특히 아서왕(Arthur)과 기사도 공동체에서 ‘수치심의 문화’는 기사 계급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잣대이다. 작품 속 아서왕과 기사들 모두 명예를 남성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명예와 수치심은 기사로서 가웨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행동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치심의 문화’를 토대로 한 행동 윤리와 가치에서 벗어난 가웨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시인은 ‘기사도 로맨스’(chivalric romance)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죄와 용서의 구도로 가웨인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한다.

주제어: 수치심, 죄, 기사도, 죽음,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대구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중세 시대 수치심이란 무엇이며, 수치심은 어디에서 유발되며, 수치심을 유발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가 소속된 공동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초서의 순례 이야기꾼들 가운데 하나인 의사(the Physician)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 딸에 대한 모함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비르기니우스(Virginus)는 비르지니아(Virginia)에게 “죽음을 택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결정을 내릴 것을 종용한다. 이에 대하여 비르지니아 역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처녀로 죽게 된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다”(Blissed be God that I shal dye a mayde/Yif me my deeth er that I have a shame.)¹⁾라고 답한다. 심지어 비르기니우스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비르지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이를 두고 일부 비평가들은 비르기니우스의 행동과 태도가 시종일관 비논리적일뿐더러 그의 동기와 행동 사이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또한 이교도의 정치적 내러티브를 그리스도교적인 도덕적 예화(Christian exemplum) 혹은 알레고리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

그러나 중세 사람들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던 이른바 ‘수치심의 문화’를 「의사의 이야기」(The Physician’s Tale)에 적용한다면 딸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들 비평가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중세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비르지니아와 결혼 전 이를 지켜주어야 할 아버지 비르기니우스에게 ‘동정’(virginity)이란 어떤 의미이며, 동정의 상실로 인한 수치심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당사자가 소속된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고려할 때, 딸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수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³⁾ 동, 서양을 막론하고 한 번 잃은 동정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며 동정의 상실로 인한 수치심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 당사자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남녀 사이의 성 차이 때문에 여성에게 동정의 상실로 인한 수치심과 실추된 명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치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며 이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서 남성 중심의 영웅주의 문학과 앞서 언급한 「의사의 이야기」를 비롯한 중세 시대 여성들의 행동 지침서 및 의학 서적들 사이 차이점들이 존재한다(Flannery 166-82). 그러나 여성의 행동과 태도를 다루는 작품들에서처럼 남성 영웅주의 문학에서 명예와 수치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개인의 정체성 및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구실을 한다. 이른바 ‘수치심의 문화’와 그 역할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학, 게르만의 영웅 문학을 비롯하여 중세, 르네상스 시대 문학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세 시대 아서왕과 기사도 공동체에서 ‘수치심의 문화’는 기사 계급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잣대이다.

물론 ‘기사도 문학’을 포함하여 수치심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 윤리와 가치 체계의 근간이 되는 작품일지라도 수치심 혹은 불명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작품마다 차이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도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일지라도 시대적 차이와 작가의 성향이나 의도에 따라 차이점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수치심의 문화’와 기사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작품은 물론 이전 초기 기사도 관련 로맨스들이나 가웨인 시인(the Gawain-poet) 이후 말로리(Thomas Malory)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작품들 사이에 수치심이 유발되는 이유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작품마다 작가의 관점과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논하게 될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속 아서왕과 기사들 모두 명예를 남성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작품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명예와 수치심은 기사로서 가웨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행동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치심의 문화’를 토대로 한 행동 윤리와 가치에서 벗어난 가웨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가웨인 시인은 여타 ‘기사도 로맨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죄와 용서의 구도로 가웨인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미 일부 비평가가 언급한 바 있는 수치심이 아서왕의 공동체와 가웨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한 다음, ‘수치심의 문화’의 법규나 행동 규범에서 벗어난 가웨인의 행동과 태도를 짚어나갈 예정이다.⁴⁾ 아울러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상실한 가웨인의 행동들이 그리스도교의 죄의식과 용서라는 틀 안에서 현실과 타협해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웨인을 수치심과 불명예로부터 회복시키는 시인의 의도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다.

I. ‘수치심의 문화’와 가웨인의 대중적 정체성

가웨인 시인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시작하고 작품의 끝을 맺고 있다.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서 시인은 아서왕의 이야기를 트로이(Troy)의 멸망과 브루투스(Brutus)의 역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로맨스의 일반적인 관례이며 아서의 궁정과 이상적인 로마의 문명과 연결하여 아서왕의 정통성과 고귀함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한 개인의 가치와 명예란 개인의 행동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조상과 혈통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인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웨인을 비롯한 원탁의 기사들 각각의 명예는 카멜롯(Camelot)과 아서왕의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란 개인의 것을 넘어 공동체의 것인 셈이다.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당사자는 물론 공동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반대로 한 사람의 명예로운 행동은 당사자를 넘어 공동체의 명예로 돌아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예란 개인의 눈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중심의 ‘수치심의 문화’가 아서왕 기사들의 행동 윤리이며 가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남성 중심의 기사도 공동체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며 좌우되는 셈이다.⁵⁾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녹색 기사(the Green Knight) 도전에 대한 가웨인 경의 행동과 태도는 ‘수치심의 문화’의 행동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녹색 기사의 등장은 원탁의 기사들의 명성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웨인의 용기와 무공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2457-8).⁶⁾ 아서왕의 명성과 원탁의 기사들의 용맹스러움을 언급한 후, 녹색 기사는 자신의 도전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수염도 나지 않는 애송이들”(beardless children)이라고 조롱한다(280). 그래도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 누구도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자, 아서왕 공동체의 명예를 녹색 기사는 송두리째 뒤흔든다:

“이런, 세상에! 그 명성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간 아서의 궁전이
이곳이 맞는가!
그대들의 긍지와 전승의 영예,
또한 그대들의 전투 혼이나 분노, 허장성세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제 원탁의 여흥과 명예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일언에 의해
팽개쳐졌도다.
모두가 일격이 가해지기도 전에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구나!”
“So here is the House of Arthur,” he scoffed,
“whose virtues reverberate across vast realms.
Where’s the fortitude and fearlessness you’re so famous for?
And the breathtaking bravery and the big-mouth bragging?
The cowering reputation of the Round Table,
skittled and scuppered by a stranger-what a scandal!
You flap and you flinch and I’ve not raised a finger!” (309-315)

녹색 기사의 모욕과 조롱에 마음이 몹시 상한 아서왕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317-20). 그러나 아서왕이 아닌 그의 조카인 가웨인이 녹색 기사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수치심의 문화’의 행동 규범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한 개인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심은 공동체 모두의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향한 모욕은 또한 개인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가웨인이 아서왕과 원탁

의 기사 전체를 대신하여 녹색 기사 도전에 응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녹색 기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는 순간부터 가웨인은 카멜롯 공동체에 소속된 기사 전체의 명예를 짊어지게 되는 형국이다. 그 순간부터 가웨인의 명예는 가웨인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이며, 둘 사이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된다. 가웨인이 명예로운 행동을 하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듯이, 가웨인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들의 일원이며 무엇보다 아서왕의 조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다음 녹색 기사가 제시하는 이른바 ‘목 베기’ 게임(beheading game)에 응하게 된다. 아울러 가웨인이 아서왕과 자신과의 혈연관계를 언급하는 것 또한 자신의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대중적 정체성,’ 즉 아서왕과 아서왕의 공동체에 의해 결정됨을 말해준다.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공동체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에 응하는 가웨인의 행동은 이상적으로 보인다. 자신을 낮추고 아서왕과 카멜롯 공동체를 높이는 가웨인의 태도 역시 ‘수치심의 문화’의 행동 윤리에 비추어 볼 때 흠잡을 데 없어 보인다. 기사로서 가웨인의 완벽한 행동과 태도는 카멜롯 궁전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통하여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된다(II. 50-9, 75-84). 카멜롯 궁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웨인 시인은 아서왕이나 가웨인의 개인적 차원의 언급이나 이들의 내적인 심리 묘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시인의 관심은 오롯이 카멜롯 궁전 외부의 화려한 모습과 풍요로움, 그리고 기사들 사이의 위계질서에 놓여있다. 이는 ‘수치심의 문화’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으로 걸음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공동체가 지닌 명예와 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가웨인과 녹색 기사 사이의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로맨스의 수사학과 전통에 따라 온갖 최상급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카멜롯 궁전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아서왕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II. 75-80). 크리스마스(Yuletide)라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시인은 공동체의 외관을 통하여 독자에게 카멜롯 궁전과 이곳 기사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준다.

외부 묘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그 안에 있는 기사들의 명예를 드러내 보이려는 시인의 의도는 가웨인이 녹색 기사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무장하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 가운데서도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 바로 가웨인의 방패에 새겨져 있는 오각별(the pentangle)인데, 시인은 두 개의 연(聯)을 할애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이를 묘사하고 있다(II. 620-77). 이는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기사로서 가웨인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 덕목들을 상징하고 있다. 오각별의 표지는 가웨인이 녹색 기사와의 규약을 이행하면서 지켜야 할 군사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덕목들의 총화를 상징하며, 세 가지는 서로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전쟁 때 기사에게 요구되는 용맹성은 물론, 평화 시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향한 자비와 관대함을 비롯하여 종교적 신뢰와 믿음이 함께하는 상징물이 바로 오각별의 표지인 썸이다. 가웨인이 오각별의 표지가 새겨져 있는 방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서왕 공동체에서 가웨인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의 전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가웨인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⁷⁾

물론 앞서 언급한 카멜롯의 외견 묘사나 오각별의 표지가 가웨인을 비롯한 카멜롯 기사들의 행동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오각별의 표지가 상징하는 기사로서의 이상적인 덕목들을 가웨인이 녹색의 교회당(the Green chapel)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 카멜롯 궁전의 화려함과 기사들의 실제 모습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기사들의 부정적 면모를 시인은 부각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가웨인 시인은 기사도 규범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기사의 이미지와 현실 속 기사의 모습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가웨인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 속에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나, 작품의 제1부에서 그려져 있는 가웨인의 모습과 행동은 ‘수치심의 문화’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남성 중심 기사 공동체의 행동 윤리와 법규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군주인 아서왕과 왕비를 대하는 가웨인의 모습에서 기사로서 세속적 덕목과 여

성을 향한 공손함이 묻어나며, 녹색 기사의 도전에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에서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종교적 겸손함마저 드러난다.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낄 줄 알고 명예 회복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공동체의 결속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웨인은 인지하고 있다.

II. “대중적 정체성”과 죽음 사이 딜레마

제2부에 들어서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수치심의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 규범에 비추어 완전하게 보이는 가웨인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오직 공동체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하여 추호의 관심도 드러내지 않았던 가웨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동 규범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혼자가 된 가웨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 외부 구성원들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중시하고 신에게 더욱 의존하는 모습으로 가웨인은 제2부의 시작부터 그려진다. 카멜롯 궁을 떠나 녹색 기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가웨인의 종교적 순례 또는 정화의 과정에 비유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Kindrick 17). 전통적 기사도 관련 로맨스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녹색의 예배당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웨인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이 재미있게도 그가 직면하게 되는 난적들이 아니라 날씨라는 점이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대상과의 싸움을 기대했던 독자들은 가웨인이 대적할 대상이 비와 서리를 동반한 추운 날씨며, 이에 고통을 토로하는 가웨인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안쓰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제1부에 묘사된 가웨인 정도의 ‘완전한’ 기사라면 여타 로맨스 문학 작품들에 등장하는 기사들보다 훌륭하게 어려운 모험을 극복해가며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들의 눈에 너무나 완벽하여 보통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던 가웨인이 한날 날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신에게 자신의 안

위를 위탁하는 모습이 낯설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울 정도이다(II. 753-5; 759-61).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제1부에서와는 달리 제2부에서 가웨인은 훌륭한 그리스도 기사의 면모를 보여주며 종교적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실행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명예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가웨인은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Mary)에게 도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신께 빌기도 한다. 제1부에서 공동체의 명예와 수치심이 가웨인의 행동을 촉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면, 버실락(Bercilak)의 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죄의식과 신을 향한 믿음이 가웨인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고 구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을 향한 기도 덕분에 추위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웨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버실락의 성이 그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은 이를 방증해준다. 게다가 가웨인이 자신의 용서를 빌며 신에게 갈구했던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으나 기도의 보답으로 “기사가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767)이 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역시 가웨인 행동의 옳고 그름이 더 이상 남성 공동체의 ‘수치심의 문화’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만약 제2부에서 가웨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견인하는 역할로서 그리스도교의 죄의식과 기도가 작품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면 수치심으로 인하여 실추된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가웨인이 ‘대중적 정체성’과 한 인간으로서 생존 사이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녹색의 예배당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삶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실을 가웨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그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줄곧 구원을 청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녹색의 띠(the green girdle) 대신 신의 구원을 받았더라면 육체적 죽음은 물론 정신적 구원까지도 얻지 않았을까? 죄와 용서라는 그리스도교의 행동 규범에 따라 가웨인이 행동했다면, 가웨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원탁의 기사들을 대표하는 기사로서 ‘대중적 정체성’과 개인의 생존 사이의 딜레마 역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가정해본다.

그러나 가웨인은 그러한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신적인’ 녹색의 띠에 삶을 위탁함으로써 신에게서 멀어짐과 동시에 기사 공동체의 일원인 버실락에게까지 거

짓말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버실락 부인으로부터 녹색의 띠를 받는 순간 가웨인은 버실락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림과 동시에 신에게 물질을 탐한 죄까지 범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가웨인이 끝까지 지켜내려 한 것은 카멜롯 공동체의 대표로서 자신의 ‘대중적 정체성’과 명예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웨인이 녹색의 띠를 받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명예 때문에 갈등하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면서까지 자신이 아서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웨인의 모습이 버실락 부인의 세 차례 유혹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버실락 부인의 침실 유혹에 앞서 가웨인 시인은 제2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버실락 궁전의 외부와 내부를 화려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인은 가웨인의 눈에 비친 성의 외부와 성내 구성원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카멜롯 궁전을 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기사도 로맨스의 분위기를 상기시켜준다(767, 869, 945). 이는 녹색의 예배당을 찾기 위해 혼자서 숲과 들판을 헤매던 상황에서 가웨인이 의지했던 그리스도교적 윤리에서 벗어나 아서왕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수치심의 문화’의 행동 규범과 가치관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버실락의 궁전에서 가웨인은 카멜롯 공동체 속 보통의 기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사로서 기술되며 그의 명예와 명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가웨인의 행동과 가치관은 제2부에서 벗어나 카멜롯의 문화적 코드로 다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카멜롯과 차이가 있다면 이곳 버실락 궁전에서 가웨인은 자기 행동들의 가늠자로 삼았던 공동체의 명예와 개인의 생존 본능 사이에 갈등하고 둘 사이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버실락 부인만큼 가웨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가웨인의 ‘대중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세 차례 가웨인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버실락 부인은 가웨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아서왕 공동체에서 그의 존재 의미와 위치, 그리고 명예를 여러 번 언급한다. 가웨인의 이름이나 명성을 부정하는 것은 가웨인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 속 그의 지위와 명성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다(Spearing 202-205; Benson 221-22). 유혹하는 과정에서 버실락 부인은 가웨인이라는 이름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가웨인의 명성과 명예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웨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웨인이 아닐뿐더러, 더 이상 카멜롯을 대표하는 기사로서 정체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명예와 명성 또한 사라짐을 의미한다. 물론 가웨인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명예가 힘과 용기를 발휘하여 전투에서 무공을 세우는 남성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버실락 부인이 말하는 궁정풍의 연애(*fine amor*)와 연관된 명예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II. 1511-13). 그러나 가웨인을 유혹하기 위해 그녀가 동원하고 있는 방법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가웨인의 급소를 찌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버실락 부인의 전략적인 접근에 가웨인 역시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나름 ‘성공’한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버실락 부인이 건네준 녹색의 띠를 받음으로써 가웨인은 개인적으로 양심의 죄를 범하게 되며, 가깝게는 버실락에게 불충을 위로는 신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카멜롯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수치심의 문화’의 행동 윤리와 가치관에서 볼 때 가웨인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서왕의 구성원들 누구도 그의 거짓됨과 이에 따라서 그가 겪은 죄책감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 이는 작품의 결론 부분에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녹색의 띠와 가웨인의 자기 고백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카멜롯 원탁의 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가웨인이 녹색 기사와의 공적인 약속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일 뿐, 가웨인이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을 했다거나 이에 따라 그가 내면의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III. 죄의식과 용서를 통한 현실과의 타협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에는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명을 보전해준다는 마법의 띠를 받게 됨으로써 비롯되는 가웨인의 죄가 가벼운 것은 물론 아니다. 그가 띠를 받는 순간 가웨인은 기사로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자신만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내면에 자리하게 되는 오욕의 상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는 평생의 멍에로 가웨인에게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카멜롯으로 돌아와서 동료 기사들과는 다르게 가웨인이 항상 녹색의 띠를 몸에 걸치고 다니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가웨인 시인은 가웨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의 행동을 옹호하는 기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가웨인 시인은 의도적으로 작품 안에 죽음 관련한 이미지들과 함께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가웨인의 행동에 정당성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한 죄의식과 용서를 통하여 시인은 가웨인이 범한 죄에 대한 변명 혹은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의 띠를 받은 후, 가웨인이 신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역시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웨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카멜롯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사로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인은 가웨인의 죄가 고해 성사를 통하여 깨끗이 사해졌다고 말한다: “마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 아침이기도 한 듯 신부는 그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고 완전하게 해주었다” (The priest declares him so clean and so pure/that the Day of Doom could dawn in the morning. ll. 1883-84)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해 성사를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가웨인의 모습을 시인은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신의 죄를 유발한 녹색의 띠를 신부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웨인은 “사랑의 띠를 안전하게 한 쪽에 집어넣어 모든 손이 가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stowing the love-lace safely aside/hiding it away from all hands and eyes. ll. 1874-75). 버실락은 물론이거니와 신에게까지도 자신이 녹색의 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웨인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물건을 “충성스럽게” 간직하는 모습이다.⁸⁾ 일부 비평가들의 지적처럼 신의 자비와 은총보다는 “미신적인” 힘을 지닌 녹색의 띠를 신뢰하는 가웨인의 모습을 두고 올바르게 고해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당시 독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Burrow 125; Sleeth 175).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해 신부의 용서나 이와 관련한 시인의 표현이 어쩐지 공허하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명예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에 따라 양심의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가웨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치심의 문화’에 기초한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녹색의 예배당까지 그를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충고에 대하여 가웨인이 분노를 분출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그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 규범이 “수치심의 문화”에게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쳐서 삶을 도모하라는 안내자의 충고는 비록 가웨인이 그리스도적 관점과 개인적 차원에서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안내자를 향한 가웨인의 분노가 이상하게 보이기도하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Kaufman 83).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웨인의 분노가 자신이 대표하는 아서왕 공동체의 명예를 스스로가 실추시켰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다른 의문은 진정 공동체의 명예를 생각했다면 녹색 기사의 반격으로부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가웨인은 왜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 이다. 가웨인의 분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눈에 완벽하게 보이려는 자기 노력과 성공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의 태도, 그리고 엄연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웨인의 방패에 새겨져 있는 오각별의 표지가 암시하고 있듯이, 완벽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가웨인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도덕적 결점이 그의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색 기사의 반격이 있고 난 이후, 가웨인의 감정이 또 한 차례 요동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완

벽을 추구하려는 가웨인의 ‘자기중심적’ 욕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⁹⁾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가웨인의 분노는 안내인을 향한 것도 아니며 녹색 기사를 향한 것도 아니다. 이는 공동체의 명예와 이상을 토대로 한 가웨인의 “대중적 정체성”과 엄연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구를 향하기보다는 가웨인 자신을 향한 분노인 셈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웨인의 행동과 태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와 주위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여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녹색의 띠를 바닥에 던지며 가웨인은 버실락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II. 2378-84). 그런 뒤, 가웨인은 자기 잘못이 직접적으로 녹색의 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페미니스트적 목소리로 이를 통렬하게 비난한다(II. 2414-20). 스피어링(A. C. Spearing)의 주장처럼 가웨인의 태도에는 가웨인 시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97).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웨인이 자기 잘못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장면에서 지금까지 그가 지켜온 품위와 형식 등의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어떤 의미에서 이 순간 가웨인은 로맨스라는 장르 속 기사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보다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줄 아는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웨인의 모습은 카멜롯 궁전에서 귀니비어를 비롯하여 버실락 부인에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녹색의 예배당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에게 보였던 것 이상으로 가웨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향하여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벤슨(David Benson)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가웨인은 자신의 이름과 이름에 따라붙는 대중적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하는 자기중심적이며 이상주의자로 보인다(240). 자기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들이 평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웨인은 기

사로서 수치심을 당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기를 원하며 모든 자기의 행동 역시 ‘수치심의 문화’를 토대로 한 행동 규범에 따라 조종되고 통제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토록 ‘수치심의 문화’와 ‘대중적 정체성’에 민감한 가웨인이 범한 잘못이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용서되듯이, 녹색 기사의 반격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가웨인을 두둔하며 시인은 그를 우호적으로까지 묘사한다. 감춰진 기획자와 기획 의도를 모두 밝힌 후, 버실락은 가웨인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고 그를 “기사도의 꽃”으로 칭송한다. 비록 죽음이라는 현실과 목숨에 대한 인간 본능적 애착을 참작할 때, 가웨인 정도라면 그래도 훌륭한 기사임을 버실락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넓은 세상에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흰 완두콩보다 값있고 소중한 진주가 대비될 수 있듯이/ 가웨인은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서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you're by the far the most faultless fellow on earth./ As a pearl is more prized than a pea which is white./ so, by God, is Gawain, amongst gallant knights. ll. 2363-65).

더욱더 재미있는 반응은 개인의 명예를 공동체 명예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서왕과 그의 기사들 역시 가웨인의 여정이 성공적이며 완벽했다고 여긴다. 반면 가웨인은 카멜롯 기사들을 대표하는 기사로서의 명예가 아니 개인적 속죄의 차원에서 녹색의 띠를 몸에 걸치게 된다. 가웨인의 모습은 기사로서의 ‘대중적 정체성’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적 기사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새로운 행동 규범의 반영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시인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기사로서의 가웨인의 “대중적 정체성”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죄와 용서 사이의 틈새를 좁히지 못한 채, 시인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적 틀 안에서 가웨인에게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수치심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고전 영웅주의 작품들이나 앵글로-색슨 시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가웨인 시인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웨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보인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중세 문학 속 등장인물들을 두고 퍼니(Ewan Fernie)는 중세 문학에서 수치심은 미미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다(42). 그의 주장이 옳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작품에서 가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녹색의 띠를 두름으로써 공동체 소속 기사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도덕적 양심을 되새기는 것이 전부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가웨인이 녹색의 띠를 걸치므로 해서 ‘수치심의 문화’가 그의 행동과 가치관을 지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적 죄의식과 용서가 그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로스(Gregory Gross)의 표현을 빌자면, 가웨인이 스스로 원탁의 공동체 기사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가웨인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행동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영웅적 기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적 기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166). 그러나 가웨인이 보여주는 일부 예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제외하곤 작품 속에서 가웨인과 버실락, 그리고 카멜롯 기사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방향 짓는 것은 이들이 죽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고 수치심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IV. 결론: 개인주의와 현실 속 죽음의 공포

여정 동안 가웨인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에 대한 세 가지 평가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시인은 단정 짓고 있지 않다. 단지 독자들에게 최종 판단의 몫을 돌림으로써 당시 기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평가 기준을 시인은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시인의 목소리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버실락의 목소리를 통하여 시인은 가웨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사도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가웨인의 행동에 대한 열린 결말과 최종적인 판단의 몫을 독자에게 돌림으로써 시인은 가웨인을 기사도 교본에서나 나올 법한 박제된 인물로 묘사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웨인을 시인은 기사도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

는 당시 살아서 존재할 법한 기사로 그려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웨인 시인 또한 당시 인기 있던 널(Ramon Lull)이나 드 샬니(Geoffroi de Charney)의 기사도 책자에 언급되어있는 모든 덕목을 기사가 현실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의 흠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가웨인을 그나마 시인이 두둔하고 있어 보인다.¹⁰⁾

아울러 가웨인에 대한 시인의 이 같은 태도는 크리티앙(Chretien de Troyes)의 작품을 비롯한 초기 기사도 문학이 보여주는 이상화된 영웅주의에 개인의 도덕성과 내면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는 중세 후기 시대적 흐름이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세 시대 어느 때부터 정확하게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에 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세 후기 들어서 ‘개인주의’가 기사 계급을 포함한 중세 사람들 생활 전반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1215년 제4차 공의회(The Fourth La tern Council) 결과로 공포된 내용이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회개’(penance)이며, 이를 통하여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내적인 성찰과 발견을 교회는 주문했다. 자기 잘못을 누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시인은 작품 속에서 가웨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가웨인이 동료들과 신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동기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명예보다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웨인은 녹색의 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온 공동체의 명예는 물론 기사로서 ‘대중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가웨인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 것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기사의 행동 윤리와 가치관도 변모할 수밖에 없듯이, 개인주의와 더불어 중세 후반 영국 전역에 휘몰아쳤던 죽음의 광풍이 시인이 가웨인을 묘사하고 작품의 결론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맞추어 시인은 가웨인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작품 곳곳에서 보여준다. 이 또한 당시 기사들의 실제 모습과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시인이 가웨인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 사회 어느 집단보다 기사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를 떨쳐버리는 일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기사들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가 다른 집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를 순식간이라도 전복시킬만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기사들이 느껴야 했던 공허함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사의 화려함과 한 인간으로서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는 당시 어느 사회 집단보다 기사들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작품에 그려진 가웨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가웨인이 몇 차례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웨인의 분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노이며, 지금까지 자기 행동 규범의 기준으로 삼아온 공동체의 명예와 영웅주의가 죽음 앞에서 한낱 의미 없는 물거품처럼 느껴진 데서 비롯된 자신을 향한 분노인 셈이다.

죽음 앞에 가웨인이 느낀 심적 갈등과 고뇌를 14세기 영국의 대표적 기사들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들에서 엿볼 수 있다.¹¹⁾ 이들은 세속적 명예와 죽음의 대립에서 오는 고뇌를 작품 속 가웨인처럼 종교적 믿음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영국의 기사도가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하던 에드워드 3세(Edward III) 시대 대표적 기사인 헨리(Henry of Grosmont)와 흑태자(The Black Prince) 관련한 기록과 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랭커스터(Lancaster)의 초대 공작이었으며, 에드워드 왕이 창립한 기사단(The Order of the Garter)의 창립 기사로서 당대 최고의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던 인물이다. 후자는 에드워드 왕의 장남으로서 당시 기사도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인물로 헨리 공작에 버금가는 이상적인 기사로 오늘날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세속적인 영예와 풍요를 누렸던 당시 최고의 기사들이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감내해야만 했던 보통의 인간들이었다.

이들 삶에 대한 기록과 전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세속적으로 구축된 ‘대중적 정

체성'과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고뇌하며 그 갈등을 종교적 차원에서 극복한다. 이들은 신에게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현실 속 죽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죽어서도 신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외적으로는 영웅적 이상과 명예를 통하여 기사로서 '대중적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통하여 극복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둘 사이에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수시로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가웨인의 모습은 시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기사의 모습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웨인 시인이 당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가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초서만큼 14세기 후반 영국 사회의 단면, 특히 당시 기사의 삶과 문화를 작품에 충실히 반영한 작가인 것은 틀림이 없다.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에서 시인은 직설적이지 않으나 매우 섬세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코믹한 필치로 당시 기사가 당면하게 되는 현실 속 죽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흑사병의 창궐과 계속된 국내의 전쟁들로 인하여 죽음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기사의 운명, 즉 세속적 화려함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인간으로서 기사의 모습을 시인은 가웨인을 통하여 복합적이며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Notes

- 1)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193; 초서 작품의 원문 인용은 본 판본을 따름.
- 2) 대표적인 비평가들로서 Ann Middleton, "'The Physician's Tale' and Love's Martyrs: 'Ensamles Mo Than Ten' as a Method in the *Canterbury Tales*," *Chaucer Review* 8 (1973): 14, 21; Charles Muscatine, *Poetry and Crisis in the Age of Chaucer* (Southbend, Ind., 1972), 139; Emerson Brown, "What Is Chaucer Doing with the Physician and His Tale?" *Philological Quarterly* 60 (1981): 134, 141; Brian Lee, "The Position and Purpose of 'The Physician's Tale,'" *Chaucer Review* 22 (1987): 154 참조.
- 3) 실추된 개인 혹은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중세 서양 문학에서 죽음이 수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 「의사의 이야기」 속에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가 성급하고 극단적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에게 「의사의 이야기」 속 비극적인 결말이 서양

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낮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결속과 관계를 훨씬 중시했던 과거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뿌리 깊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까? 수치심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서 나오는 이른바 ‘할복 의식’과는 달리 서양의 중세 기사도 문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식적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흥미롭다.

- 4)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를 ‘수치심의 문화’의 관점에서 논한 대표적 논문으로 J. A. Burrow, “Honour and Sham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ssays on Medieval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 1984): 117-81; Robert L. Kindrick, “Gawain’s Ethics: Shame and Guilt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nuaire mediaevale* 20 (1981): 5-32; Loretta Wasserman, “Honor and Sham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hivalric Literature: Essays on 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Life in the Later Middle Ages*, ed., Larry D. Benson and John Leyerle (Kalamazoo, MI: Western Michigan U, 1980): 77-90; Derek Pearsall, “Courtesy and Chivalr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e Order of Shame and the Invention of Embarrassment,” *A Companion to the Gawain-Poet*, ed., D. S. Brewer and Jonathan Gibson (Cambridge: D. S. Brewer, 1997), 351을 들 수 있다.
- 5)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Andrew Morrison, “Shame: On Either Side of Defense,” *Contemporary Psychoanalysis* 35 (1999): 91-105; J. G. Peristiany and Julian Pitt-Rivers, *Honor and Grace in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P, 1991; Bernard Williams, *Shame and Necessity*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3).
- 6)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rans. Simon Armitag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41. 작품의 원문 인용은 본 판본에 따름.
- 7) 오각별의 표지가 상징하는 덕목들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 유행했던 기사도 관련 책자에 언급한 덕목들과 일치하며, 가웨인이 갑옷으로 무장하는 장면은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사제복을 입는 장면은 연상시킨다; 이동춘, “14세기 기사도 관점에서 본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영미연구』 11 (2004): 99.
- 8) 가웨인이 범하는 탐욕(covetousness)의 죄와 14세기 중세 귀족 사회와의 연관성은 논하고 있는 Walter Srebnick,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d Late Medieval Aristocratic Culture,” *Mid-Hudson Language Studies* 12 (1989): 13-23; Christopher T. Allmond, *The Hundred Years War: England France at War, c. 1300-c. 1450*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9) 벨라미(Elizabeth Bellamy)는 가웨인을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빠져 있는 인물이며, 그를 “나르시시적 영웅”(narcissistic hero)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Elizabeth J. Bellamy, *Translations of Power: Narcissism and the Unconsciousness in Epic History* (Ithaca;

Cornell UP, 1992), 30.

- 10) 이동춘, “14세기 기사도 관점에서 본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 『영미연구』 11 (2004): 95~116에서 당시 기사도 관련 책자에 언급된 기사가 지켜야 할 이상적인 덕목들에 비추어 가웨인의 행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11) Catherine Batt, Henry of Grosmont, First Duke of Lancaster, “*Le Livre de Seyntz Medicines*”: *The Book of Holy Medicines*, trans, (Tempe: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2014); Chandos Herald, *Life of the Black Prince* (New York: AMS Press, 1974).

인 용 문 헌

- 이동춘. 「14세기 기사도 관점에서 본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 . 『영미연구』 , 11집, 2004, 95-116쪽.
- Benedict, Ruth.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Routledge & Kegan Paul, 1977.
- Bellamy J. Elizabeth. *Translations of Power: Narcissism and the Unconsciousness in Epic History*. Cornell UP, 1992.
- Benson, Larry D. “The Meaning.” *Art and Traditio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Rutgers UP, 1965, pp. 207-48.
- Block, R. Howard. “Chaucer’s Maiden’s Head: ‘The Physician’s Tale’ and the Poetics of Virginity.” *Representations*, vol. 28, 1989, pp. 113-34.
- Burrow, J. A. “Honour and Sham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ssays on Medieval Literature*, Clarendon P, 1984, pp. 117-31.
- _____. *A Reading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Routledge & Kegan Paul, 1965.
- Brown, Emerson. “What Is Chaucer Doing with the Physician and His Tale?” *Philological Quarterly*, vol. 60, 1981, pp. 129-49.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ited by Larry Benson et al., Houghton Mifflin, 1986.
- Christopher, Allmond T. *The Hundred Years War: England France at War, c. 1300-c. 1450*. Cambridge UP, 1988.
- Flannery, Mary C. “The Concept of Shame in Late-Medieval English Literature.” *Literature Compass*, vol. 9, 2012, pp. 166-82.
- Gross, Gregory W. “Secret Rules: Sex, Confession, and Truth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rthuriana*, vol. 4, 1994, pp. 146-72.

- Henry of Grosmont, *Le Livre de Seyntz Medicines: The Book of Holy Medicines*.
Translated by Catherine Batt,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2014.
- Herald, Chandos. *Life of the Black Prince*. AMS P, 1974.
- Honour and Shame in Anthropology*. Edited by J. G. Peristiany and Julian
Pitt-Rivers, Cambridge UP, 1992.
- Honour and Shame: The Values of Mediterranean Society*. Edited by J. G. Peristiany,
U of Chicago P, 1966.
- Kaufman, Gershen. *Shame: Power of Caring*. Shenkman Books, Inc., 1992.
- Kindrick, Robert L. “Gawain’s Ethics: Shame and Guilt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nuaire mediaevale*, vol. 20, 1981, pp. 5-32.
- Lee, Brian. “The Position and Purpose of ‘The Physician’s Tale.’” *Chaucer Review*,
vol. 22, 1987, pp. 141-60.
- Middleton, Ann. “‘The Physician’s Tale’ and Love’s Martyrs: ‘Ensamples Mo Than
Ten’ as a Method in the *Canterbury Tales*.” *Chaucer Review*, vol. 8, 1973,
pp. 9-32.
- Morrison, Andrew. “Shame: On Either Side of Defense.” *Contemporary
Psychoanalysis*, vol. 35, 1999, pp. 91-105.
- Muscatine, Charles. *Poetry and Crisis in the Age of Chaucer*. U of Notre Dame P,
1972.
- Pearsall, Derek Pearsall. “Courtesy and Chivalry in *Sir Gawain and the Greek
Knight*: The Order of Shame and the Invention of Embarrassment.” *A
Companion to the Gawain-Poet*, edited by D. S. Brewer and Jonathan
Gibson, D. S. Brewer, 1997, pp. 351-70.
-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ranslated by Simon Armitage, W. W. Norton &
Company, 2007.

-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ranslated by Marie Borroff, W. W. Norton & Company, 2009.
- Sleeth, Charles R. "Gawain's Judgment Day." *Arthuriana*, vol. 4, 1994, pp. 175-83.
- Spearing, A. C. *The Gawain-Poet*. Cambridge UP, 1970.
- Srebnick, Walter.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d Late Medieval Aristocratic Culture." *Mid-Hudson Language Studies*, vol. 12, 1989, pp. 13-23.
- Wasserman, Loretta. "Honor and Sham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hivalric Literature: Essays on 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Life in the Later Middle Ages*, edited by Larry D. Benson and John Leyerle, Western Michigan U, 1980, pp. 77-90.
- Williams, Bernard. *Shame and Necessity*. U of California P, 1993.
- Ferne, Ewan. *Shame in Shakespeare*. Routledge & Kegan Paul, 2002.

Abstract

Shame and Guilt As Sanctions Controlling Gawain's Behavior

Dongchoon LEE
Daegu University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is a valuable work for the study of honor and shame in late-medieval English literature. In addition to the social codes influenced by pre-Christian “shame culture”, the “guilt culture” deeply embedded in the work is also cruc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Gawain* poet’s intention as well as Sir Gawain’s behavioral modes. The shame culture is the performative public honor, which exerts the strongest influence upon Sir Gawain for the first half of the poem. After his departure from the Arthurian court, Sir Gawain’s actions are circumscribed by both guilt and shame ideologies. *Gawain*’s ending creates the shift from upholding the chivalric ideals of a romance hero based upon shame culture to a guilt culture whose emphasis lies on Sir Gawain’s interior thoughts and personal moralities closely linked with the Christian doctrines. The move from shame culture to guilt culture results from the *Gawain* poet’s realistic vision toward the chivalry of the late medieval age and his awareness of the social changes such as the advent of individualism, and the need for personal confession.

Key Words: shame, guilt, chivalry, death,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논문접수일: 2023.09.24

심사완료일: 2023.10.16

게재확정일: 2023.10.16

이름: 이동춘

소속: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이메일: dcleee@daegu.ac.kr